

동물은 우리 속에 가뒀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고등한 동물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했을 때만 그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 나의 연구대상은 박쥐, 갈매기, 휘파람새, 개구리, 귀뚜라미, 그리고 황새와 같은 동물들이다. 나의 학문 초기에 박쥐는 참 매력 있는 동물로 다가왔다. 킁킁한 공간에서 비행할 때 간간히 날개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고요함이 흐른다. 그러나 박쥐탐지기를 켜는 순간 따발총 소리가 연신 들린다. 박쥐는 초음파로 물체를 탐지하는 것 말고도 서로 의사소통할 때 초음파를 낸다. 나와 박쥐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 탐지기를 켜고 있을 때 박쥐의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

관박쥐는 우리나라에 흔한 박쥐다. 이 종은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낚아채 먹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땅바닥에 놓여 있으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실험실에 들어온 첫날부터 먹이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적응훈련을 시켜야 했다. 어느 날이었다. 실험실 문을 열자마자 박쥐는 옷소매에 붙었다가 어깨에도 매달리는 등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행동을 했다. 물론 박쥐 초음파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초음파의 의미를 깨달았다. 옆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자 바로 내 손에 두 다리로 대롱대롱 매달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한참 동안 정신 없이 받아먹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억류생활의 영향이 없는 실험동물을 갖는 것은 동물행동학 연구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특히 동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에게 대한 친밀감으로 머물고 있는 동물들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다.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썸기갈매기 무리들은 내가 부르는 '갈' 소리에 반응을 한다. 내가 '갈' 외치면 하늘 높은 곳에서 날개를 접고 바람소리를 내면서 급강하하여 내려온다. 그리고 짧게 제동을 걸면서 내 곁에 내려앉는다. 야생갈매기 사회생활 연구에 빠져들며 나는 그들과 '어미와 새끼' 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깊은 산 속의 연못에서 헤엄치면서 함께 했던 갈매기와의 생활은 내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갈매기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을 좋아한다. 수박껍질을 던지면 물 속에서 그것을 찾아 주둥이에 물고서 날기도 하고 물 속에다 빠뜨리며 자맥질을 즐긴다. 숙달되면 공중 높이 날아 수박껍질을 떨어뜨려놓고 수면에 닿기 전에 낚아채는데, 그 솜씨는 아주 일품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갈매기는 날개를 몸통에 바짝 붙이고 머리를 아래로 두고 수직비행을 한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먹이사냥의 기초훈련에 해당된다.

멀리서 배를 타고 '갈' 하고 부르면 갈매기 무리는 나의 모자 위로, 배의 갑판 위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나를 향해 함께 날기를 자청한다. 금방 먹이를 받아먹어서인지 먹이를 건네줘 봐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연신 입을 벌려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엄마, 같이 날아 봐요!"라고 흐느끼듯 구걸행동을 해 보인다. 내가 갈매기의 어미가 되어 날 수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 나를 따라 날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던 후 며칠이 지나 이들은 나를 두고 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마을까지 날아갔다 오곤 했다.

우리 인간이 언어나고 부르는 그런 성격의 언어를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다. 갈매기는 의사표시의 전체 코텍스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의사표시의 신호를 보내는 능력도, 이 신호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능력도 다 선천적인 것이다. 자연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셈이다. 야생동물과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강한 인연으로 맺어져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

글 |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자연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

